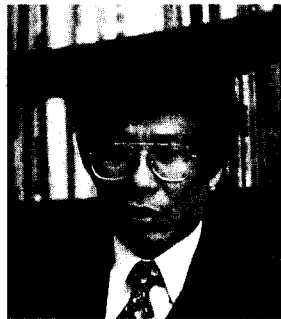


「프랑켄슈타인과 과학의 인간창조」



김성곤

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

19세기 초, 유럽에는 계속되는 폭우가 쏟아지는 날이 많았다. 소설 『프랑켄슈타인 Frankenstein, or the Modern Prometheus(1818)』은 1816년 6월, 계속되는 스위스의 비를 피해 제네바 근교의 셸리 Shelley의 집에 모인 메어리 Mary(19세)와 그녀의 남편이자 시인인 퍼시 Percy(24세), 그리고 그의 주치의인 존 John(23세)이 소일거리로 서로 이야기를 지어내 들려주기로 하던 과정에서 메어리가 만들어낸 소설이다. 당시 그들은 번개치는 날, 연을 날려 낙뢰현상을 관찰한 미국인 벤자민 프랭클린 Benjamin Franklin의 실험에 의해서 대단히 고무되어 있었다. 그래서 원작소설에서는 벼락에

의해 생명을 받은 괴물이 벼락에 의해 죽음을 당하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다.

19세기 초에는 과학자들의 관심이 온통 전기와 전류에 집중이 되어 있었다. 그래서 상상력이 풍부했던 메어리는 전기의 충격과 파장을 이용하면서 혹시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킬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보게 되었다.

그러나 인간이 테크놀로지를 사용해 또 다른 인간을 창조하는 것이 과연 윤리적으로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녀는 회의적이었다. 유명한 낭만주의 시인 퍼시 셸리 Percy B. Shelley의 아내였던 메어리는 결국 과학자가 아닌 작가였던 것이다.

『프랑켄슈타인』은 어쩌면 가장 많이 영화화된 문학작품 중 하나일 것이다. 예컨대 고전적인 영화로 알려진 보리스 칼로프 Boris Karloff의 『프랑켄슈타인 Frankenstein』(1931)을 비롯해, 그 속편인 『프랑켄슈타인 1970 Frankenstein 1970』(1958), 그리고 『앤디와 홀의 프랑켄슈타인 Andy Warhol's Franken-stein』(1975)이 그 대표적인 경우에 속하며, 그 외에도 멜 브룩스 Mel Brooks가 감독하고 진 와일더 Gene Wilder와 진 해크만 Gene Hackman이 주연한 『영 프랑켄슈타인 Young Franken-stein』(1978)같은 패러디 영화가 만들어졌다. 그리고 최근에는 리바이벌 영화 붐을 타고 프랜시스 포드 코폴라 Francis Ford Coppola가 제작한 『프랑켄슈타인 Frankenstein』(1994)이 등장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영화들은 모두 관객들과 비평가들로부터 좋은 평을 받았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영화들이 모두 원작에 충실하게 제작된 것은 아니다. 비교적 원작에 가깝다고 볼 수 있는 코폴라의 『프랑켄슈타인』 역시, 현대적인 감각과 시각적 효과를 살리기 위해 여기저기에서 원작과는 다른 설정을 하고 있다. 예컨대 이 영화는 북극탐험 중 좌초한 선장이, 괴물에 쫓겨오는 프랑켄슈타인(이 이름은 오늘날 괴물의 대명사처럼 되어버렸지만, 사실은 괴물을 만든 과학자의 이름이다)을 만나, 병들고 탈진해 죽어가는 그로부터 괴물을 만들게 된 지난 과거사를 회상의 형식을 통해 듣는 방식으로 구성이 짜여져 있다.

그래서 영화의 마지막에 선장은 크게 깨달은 바 있어, 자신의 맹목적인 북극 탐험을 포기하고 되돌아간다. 그리고 바로 거기에 코폴라가 관객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 - 즉 인간의 맹목적인 추구와 무모한 모험심, 그리고 테크놀로지의 오용은 결국 무서운 괴물을 만들고, 인간들은 모두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바로 그 '괴물'에 의해 파멸해간다는 것이다. 과연 북쪽으로 계속 나아가려는 선장의 앞 길에는 괴물의 무시무시한 비명 소리가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원작소설에서는 프랑켄슈타인의 절친한 친구인 앙리Henri가 화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영화에서는 제네바의 친구인 앙리대신, 그가 독일의 잉골슈타트 Ingolstadt의 대학에서 만난 친구가 등장한다. 그러나 영화 속의 화자는 그 친구가 아니라, 탈진해 죽어가는 프랑켄슈타인 바로 그 자신이다. 프랑켄슈타인은 자신의 가문이 제네바 최고의 의사 가문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원작소설에서는 의사 가문이 아니라, 명망있는 상인의 가문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유명한 의사가 되기 위해 독일의 잉골슈타트 의과대학에 가서 공부를 시작하는데, 그러다가 그는 전기를 이용해 인간을 창조하는 작업에 몰두하게 된다. 그의 궁극적 목적은 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인간을 만드는 것이었다.

프랑켄슈타인은 완벽한 인간을 창조하기 위해 최상의 신체와 최고의 두뇌를 사용한다. 그러나 수술자국과 전기충격은 괴물(Robert de Niro 扮)의 모습을 흉하게 만들었고, 사람들은 바로 그 흉칙한 외모로 인해 괴물을 차별하고 학대한다. 그 결과, 원래 선하게 창조된 괴물은 점차 악한 성품을 갖게 된다. 바로 그러한 면에서 영화 『프랑켄슈타인』은 강력한 문명비판이 되기도 한다. 괴물은 자신을 만든 프랑켄슈타

인에게 이렇게 말한다. “나는 혼자서 읽는 법을 배웠는데, 인간들은 자기네들끼리도 나에게 대하는 것만큼이나 나쁘게 대한다는 것을 역사에서 읽었습니다.”

심지어는 창조자인 프랑켄슈타인까지도 괴물의 추하고 역겨운 외모가 싫어 자신의 피조물을 거리로 내쫓는다. 자신의 의무를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충고하는 친구에게 프랑켄슈타인은 이렇게 말한다. - “그는 실수였어... 그는 내 것이 아냐. 잘못된 실험의 결과였을 뿐야. 그는 인간이 아냐. 난 그에게 아무것도 빚지지 않았어.”

그러나 프랑켄슈타인은 결국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지 못한다. 독일의 잉골슈타트에서 스위스의 제네바로 그를 뒤쫓아간 괴물에 의해 그의 가정은 풍비박산이 되고, 결국에 그 자신도 괴물과 더불어 죽게 된다. 괴물은 자신을 만든 프랑켄슈타인을 원망하면서, 자신에게 신부를 만들어줄 것을 요청한다. 그러나 프랑켄슈타인은 또 하나의 괴물을 만들수는 없다면서 그 요청을 거절한다.

영화에서는 분노한 괴물이 프랑켄슈타인의 신부인 엘리자베스를 무참히 살해한다. 슬픔과 그리움에 눈이 먼 프랑켄슈타인은 엘리자베스의 온전한 머리를(그녀의 가슴은 파열되었다) 교수형 당한 여인 저스틴의 몸에 붙여 여자 피조물을 만들어 낸다. 그러나 그녀 또한 괴물일 뿐이다(원작소설에서는 프랑켄슈타인이 엘리자베스와 결혼하기 전에 죽으며, 엘리자베스는 살아남아 프랑켄슈타인과 괴물이 죽은 후, 화자인 앙리와 결혼한다.

그러므로 프랑켄슈타인이 엘리자베스와 저스틴의 시체를 이용해 여자괴물을 만드는 장면은 원작에는 없다). 코폴라의 영화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죽은 엘리자

베스의 머리를 교수형 당한 저스틴의 몸에 붙여 만들어낸 여자괴물의 얼굴과 몸에 생긴 무수한 썬댄 자국들이다. 상식적으로 썬댄 자국은 목에만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폴라는 여자괴물의 외모를 흉하게 만들기 위해서인지, 그녀의 전신에 썬댄 자국을 만들어 놓아 관객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든다.

[프랑켄슈타인]의 주제는 “모든 인간은 선하게 창조된다. 다만 주위 사람들의 편견과 환경이 그를 악하게 만들 뿐이다.”와, “사람은 자신이 창조한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만 한다.” 그리고 “인간은 인간을 만들려고 해서는 안된다.”이다. 코폴라의 영화 [프랑켄슈타인이 성공하고 있는 것은(비록 때때로 감상으로 빠져들기는 하지만) 바로 그와 같은 전통적인 주제의 효과적인 드러냄이다.

메어리 셸리와 그녀의 동료들은 과학 기술이 과연 인간을 창조 할 수 있을지에 대해 꽤 진지한 관심을 갖고 있었다. 물론 돌이켜보면, 당시의 과학이나 의학 수준이란 대단히 조야하고 초보적인 수준이었겠지만, 그때만해도 그들을 인간 창조의 가능성에 대해 꽤 많은 기대감을 갖고 있었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메어리의 소설 [프랑켄슈타인]은 바로 그와같은 낙관주의에 제동을 걸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의 주목을 끈다. 원작소설은 다음과 같은 앙리의 말로 끝난다.

- “생명 창조의 비밀은 프랑켄슈타인과 함께 사라졌다. 아마도 과학자들이 더 많은 것을 알게됨에 따라, 그 비밀도 언젠가는 재발견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때쯤엔 난 이미 죽어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것에 아무런 유감이 없다.”

영화와 원작소설 모두에서 괴물은 죽는다. 그러나 코폴라는 자신의 메시지와 현대적 의미를 가미하기 위해 영화를 원작과 다르게 만들었다.

예를들어, 그는 괴물을 피해자로 묘사하는데 급급한 나머지, 괴물을 자살시키는 아주 감상적인 결말을 설정했다. 원작에서는 격투 중인 괴물이 프랑켄슈타인의 단검을 빼앗아 자기 주인을 찌르려고 하늘높이 팔을 치켜올렸을 때, 칼에 벼락이 떨어져 두 사람은 새까맣게 타죽는다. 그것은 곧 벼락에 의해 탄생한 괴물이 벼락에 의해 죽는다는 점, 그리고 창조자와 피조물이 한데 뒤엉켜 하늘의 심판을 받고 화형당한다는 점에서 대단히 상징적이다.

그런데 영화에서는 자기 주인의 신부를 산채로 심장을 꺼내 죽일만큼 잔인한 괴물이 갑자기 주인의 죽음 앞에 눈물을 흘리며, 주인의 시체를 화장시키고, 자신도 같이 분신자살하는 비논리적이고 감상적인 결말을 제시하고 있다. 물론 괴물이 슬퍼하는 것은, 프랑켄슈타인의 죽음 그 자체라기 보다는, 그의 죽음과 더불어 사라진 자신의 여성 반려자 창조의 꿈인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 속에서는 오직 자신의 창조자의 죽음에 대한 괴물의 비탄만이 강조되고 있다.

물론 오늘날 (프랑켄슈타인)은 그 보다 훨씬 더 복잡적으로 여러각도에서 다양하게 해석되고 있다. 예컨대 페미니스트들은, 프랑켄슈타인이 여성의 고유권한인 '생명의 창조 the creation of life'의 영역을 침범하는 잘못을 범했다고 비판한다. 그래서 그들은 프랑켄슈타인과 그의 어머니, 그리고 엘리자베스와 관계까지도 심리적인 차원에서 분석하면서, 그의 앤티 페미니즘이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

는가를 강조하고 있다. 또 코폴라는 이 영화에서, 인간의 맹목적인 탐험정신과, 과학기술의 오용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

과연 남자는 여성의 고유권한을 침해할 수 있으며, 인간은 조물주(주)의 고유영역을 침범할 수 있는가? (프랑켄슈타인)은 페미니즘과 유전공학과 생체공학이 고도로 발달한 20세기 후반의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절실하게 다가오는 엄숙한 경고처럼 보인다.

